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

문 순 덕*

차례

1. 들머리
 2. 첨사 '-게'의 담화기능
 3. 첨사 '-이'의 담화기능
 4. 첨사 '-기'의 담화기능
 5. 마무리
- 참고문헌

1. 들머리

대우법이란 화자나 청자의 사회적 요인(나이, 성별, 직업, 종교, 대화 장면 등)에 어울리게 달라지는 말씨를 가리킨다. 대우법에는 높임말, 예삿말, 낮춤말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반말체와 통합하는 첨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에는 '-게, -이, -기'가 있는데 한 문장 내에서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통사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첨사들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문장 전체에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이 있다.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첨사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첨사로 분류했다.

2. 첨사 '-게'의 담화기능

제주방언 '-게'에는 감탄사, 연결어미, 종결어미의 문법기능이 있으며, 첨사라는 담화 기능도 있다. 여기서는 '-게'의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 보겠다.

(1)가. 이 집은 깨끗하지?(이 집은 깨끗하지?)

나. 게.(그렇다, 물론이다)↗

다. 응.

(1나)에서 '게'는 '그렇다'는 감탄사로 쓰였다. 보통 긍정의 대답으로 (1다)가 발화되는데 '게'가 발화됨으로써 화자의 생각을 지지하면서 응답자 역시 발화된 사실을 강조한다. (1나~다)에서 응답자의 심리 상태는 다르다. '응'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발화된 사실만을 인정한다면 '게'라고 응답했을 때는 응답자의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된다. (1가)에서 화자는 깨끗함에 대한 의견 제시일 수도 있다. (1나)처럼 발화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화자의 생각이 확실할 때 실현된다. 즉 화자는 신정보를 주려고 하지만 청자에게는 구정보일 때 쓰이는 첨사이다. 감탄사 '게'에는 화자의 단정, 강조의 담화 의미가 있다.

(2)가. 우리딸 어디 갑디가?(우리딸 어디 갔습니까?)

나. 가윈 학교에 감선게.(그아이는 학교에 가고 있더라게.)

다. 가원 학교에 감서라.(그아이는 학교에 가고 있더라.)

(2나)에서 '-게'는 평서형종결어미이다. (2다)처럼 '감서라'를 발화하면 단순히 '우리딸'이 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문장이 된다. 반면에 (2나)처럼 '감선게'를 발화하면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어라'보다 종결어미 '-ㄴ게'일 때에 화자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3)가. 공부 열심히 하게.(공부 열심히 하자).

나. 성님은 뭐 먹었수젠 ㅎ명 방에 들어완게.

(형님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라고) 하며 방에 들어오더라게.)

(3가)에서 청유형종결어미 '-게'는 중양어 청유형종결어미 '-자'와 문법기능이 같다. (3나)에서 첨사 '-게'는 인용어미 '-라고'에 해당하며 제주방언에서 생산성이 높은 어미이다. 물론 '-젠'은 동사 'ㅎ다'와 공기한다. '들어완게'에서 '-ㄴ게'는 평서형종결어미이다.

(4)가. 오늘 회의에 올 사람이 잇수과?

(오늘 회의에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 우리말고 올 사람이 셔게?(우리말고 올 사람이 있겠어게?)

다. 올 사람이 셔?

(4나)는 의문형종결어미와 첨사 '-게'의 통합형이다. 화자는 회의에 참가할 사람이 더 없다고 판단했다. (4다)처럼 '셔(시+어)'로도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데 (4나)처럼 종결형 '셔'에 첨사 '-게'가 통합되면 발화된 문장이 사실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화자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다고 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더 올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내렸다. 여기서 화자는 주어진 상황이 구정보여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

조한다. 첨사 '-게'가 발화되면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게'는 첨사임을 알 수 있다.

(5)가. 집이 오라게.(집에 오라게.)

나. 일 잘 흡서게.(일 잘 하십시오.)

(5')가. 집이 오라.(집에 오라.)

나. 일 잘 흡서.(일 잘 하십시오.)

(5')는 명령형어미로 끝난 문장이고 (5)는 첨사 '-게'가 통합된 문장이다. (5')를 무표향으로 보면 첨사 '-게'와 통합된 (5)는 유표향이 된다. (5)는 명령문인데 첨사 '-게'가 쓰여서 화자의 생각이 강하게 발화되었다. 명령문으로 발화되어서 첨사 '-게'에 명령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첨사 '-게'를 덧붙임으로써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면서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정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5)에서 첨사 '-게'는 반말이나 높임말에 두루 쓰인다. (5가)와 (5가')의 명령 정도를 비교해 보면 (5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집에 오기'를 단순 명령한다면 (5가)는 첨사 '-게'에 초점이 놓여 있다. 청자는 화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화자는 청자가 당연히 집에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차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5나)와 (5나')에서 존칭명령형어미가 쓰인 것으로 봐서 화자는 청자보다 손아래이거나 사회적 친소관계에서 좀 소원한 관계이다. (5나')는 단순히 화자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문장이라면 (5나)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다. 즉 '일을 잘하기 바랐'는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을 때, 화자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화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좀더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5)~(5')에서 보듯이 첨사 '-게'가 첨가된 문장은 화자의 요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강하다. 완결형 문장에 첨사 '-게'가 쓰인 것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좀더 분명히 나타내고 싶을 때 선택된다. 즉 완결

된 문장에서 수의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사의 기능이 강하며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담화 의미가 있다.

(6)가. 새각시는 춤 곱수다게.(신부는 참 곱습니다그려.)

나. 가원 집이 오람수다게.(그아이는 집에 오고 있습니다게.)

다. 나가 때려부난 울엄주게.(내가 때려서 울고 있다게.)

(6')가. 곱수다.

나. 오람수다.

다. 울엄주.

(6가)에서 '-게'는 '그려, 그렇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의 의미가 있다. (6가')처럼 '곱수다'로도 문장은 완성되는데 '-게'가 첨가되면서 고운 정도가 강조된다. 침사 '-게'에 초점이 놓이면서 화자의 생각이 잘 반영된다. 화자는 '곱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적인 발화일 수도 있다.

(6나)에서 '오람수게'로 문장이 끝나면 '-게'는 종결어미이다. 그러나 '오람수다게'로 발화되면 '-게'에는 침사의 기능이 있다. '오람수다게'를 완성문 형태로 보아야 침사의 기능이 강하고, 미완성문 형태로 보면 '-게'는 종결어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오람수게'는 평서문의 기능이 확실하다. '오람수다'에 화자의 의지가 첨가된 '오람수다게'는 화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가아가 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나에게 확인하느냐'는 짜증도 들어 있다. 또는 조금히 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는 요구도 내포되어 있다. '오람수다게'에 초점이 놓여 있어서 화자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난다. 침사 '-게'는 '그려'의 뜻도 있다('오고 있습니다그려').

(6다)도 '울엄주'라는 단순한 사실에 침사 '-게'가 통합되어서 '울고 있는 행위'를 분명히 확인해 준다. 침사 '-게'는 '단정, 확인, 강조'의 담화 의미가 있다.

(6')는 사실을 알려주는 평서문인데 첨사 '-게'가 통합된 (6)은 화자에게는 구정보인데 청자에게는 신정보가 되고 있다. (6)에서 화자는 발화된 문장이 청자에게도 구정보라고 여기고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해 정도에 장애가 있다면 화자에게는 구정보인데 청자에게는 신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4)~(6)에서 보듯이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데 첨사 '-게'가 문장에 통합됨으로써 화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첨사 '-게'는 통사기능보다는 담화기능이 강하며 담화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7)가. 집안 형편은 풀릴 거 닭수과?(집안 형편은 풀릴 거 닭습니까?)

나. 계메게, 어떻게 홀티?(글쎄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메, 어떻게 홀티?

(7다)처럼 첨사 '-게' 없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7나)에 첨사 '-게'가 통합하면서 화자의 불확실한 생각을 강조한다. 첨사 '-게'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서 수의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화기능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첨사 '-게'는 부사 '계메'를 강조한다. '계메게'는 '형편이 나아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계메' 자체가 긍정과 부정을 모호하게 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첨사 '-게'가 통합되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게 된다.

(8)가. 가윈 비 올 줄 알았지마는게 그냥 가서.

(그 아이는 비 올 줄 알았지마는게 그대로 갔다.)

나. 배고프민게 그까짓 거게 먹는 게 문제라?

(배고프면게 그까짓 것게 먹는 것이 문제인가?)

다. 그 소나인 신체가 좋고게, 대담ㅎ주게.

(그 사나이는 신체가 좋고게 대담하다게.)

라. 가원 어제 집이 오랏거든게.(그아이는 어제 집에 왔거든게.)
 마. 너 책은 여기 있네게.

(8)에서 ‘-게’는 연결어미 ‘-으민, -고’, 의존명사 ‘것’, 보조사 ‘-마는’, 종결어미 ‘-거든, -네’와 통합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침사 ‘-게’를 생략해도(알았지마는, 배고프민, 그까짓 것, 좋고 등) 문장은 완결된다.

(8가)에서 침사 ‘-게’는 선행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는 ‘그아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인정하고, 확인해 준다. 침사 ‘-게’가 쓰임으로써 화자의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동작주의 행동을 인정하고 비난받을 여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8나)에서 침사 ‘-게’는 연결어미, 의존명사 ‘것’과 통합해서 쓰인다. 침사 ‘-게’가 첨가되면서 누구나 배고프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화자의 단정, 확고한 신념을 담화 의미로 볼 수 있다. (8다)에서 화자가 판단하기에 ‘동작주의 신체가 좋은 정도’를 단정한다. 발화된 문장은 화자에게는 구정보인데 이 구정보를 새로운 청자에게 전달하고, 확인시키고,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8라)에서 종결어미 ‘-거든’에 침사 ‘-게’가 통합하면서 동작주의 행동을 단정한다. ‘오랏거든’과 ‘오랏거든게’에는 담화상의 차이가 있다. 즉 화자에게는 구정보가 청자에게는 신정보가 된다. 그래서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8마)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장이다. 침사 ‘-게’는 선행문장 전체를 확인하고 강조한다. 즉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인식시키는 발화이기도 하지만 청자가 모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의미도 있다. 침사 ‘-게’에는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8)에서 침사 ‘-게’는 화자가 담화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의적으로 선택할 때는 화자 자신의 생

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청자의 생각을 무시하려는 의도도 가능하다. 즉 청자의 생각 같은 것을 일축해 버리고 화자의 생각이 옳음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 (9)가. 그 남즈가게 ㄹ찌 갔주.(그 남자가게 같이 갔다.)
- 나. 그 남즈가게 ㄹ찌게 갔주.(그 남자가게 같이게 갔다.)
- 다. 중국은게 시시하게 보주게.(중국은게 시시하게 본다게.)
- 라. 이디 물ㄹ찌게 지프주.(여기 물같이게 깊다.)
- 마. 이디 물ㄹ찌 지프주.

(9)에서 첨사 '-게'는 주격조사 '-가', 부사 'ㄹ찌', 보조사 '-은, -ㄹ찌'와 통합한다. 첨사 '-게'가 생략되어도(남즈가, 중국은, ㄹ찌 등)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9가)에서 화자는 같이 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동작주임을 강조하면서 신정보임을 알려준다. (9나)에서 첨사 '-게'는 주격조사나 부사에 자유롭게 통합된다. 'ㄹ찌'와 'ㄹ찌게'에서 의미 정도를 비교하면 'ㄹ찌게'는 '반드시 같이'라는 화자의 신념이 들어 있다. 이는 첨사 '-게'에 담화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9다)는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중국'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는 첨사 '-게'의 담화의미이기도 하다.

(9라)에서 첨사 '-게'는 '물같이'를 강조하는데 '물이 깊은 정도'를 비교하면서 첨사 '-게'를 이용하고 있다. 청자는 여기 물이 깊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화자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낸다. 초점이 '-ㄹ찌게'에 놓여서 '같은 정도'를 강조하고 청자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다. (9마)처럼 첨사 '-게'가 없이 '-ㄹ찌'만으로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런데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첨사 '-게'의 선택에 관여한다.

(8)에서도 보았듯이 (9)에서도 첨사 '-게'가 발화될 때는 화자가 자

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침사 '-게'는 화자의 확신, 단정, 강조가 가미된 담화기능이 강하다.

(10)가. 이거 뭐?

나. 순이 옷게.

다. 순이 옷.

(10나)에서 명사 '옷'에 침사 '-게'가 통합되어서 문장이 끝났다. 이렇게 명사와도 통합이 가능하다. '순이 옷'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데, '옷게'로 끝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는 구실을 한다. 즉 화자에게는 구정보이고 청자에게는 신정보일 수 있다. 침사 '-게'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단정하고 있다. 청자에게는 강한 의미 전달이 되며 당연히 동의하기를 요구한다.

(1)~(10)에서 침사 '-게'가 부사, 명사, 격조사, 보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것으로 봐서 쓰이는 환경이 문장내에서 자유로우며,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또한 높임, 낮춤의 서법에 관계없이 침사 '-게'가 쓰일 수 있다. 즉 화자가 청자를 대하는 대우 관계에 따라서 실현 되는데, 다만 평서, 명령 등 통사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발화된 문장에서 침사 '-게'가 생략되어도 문장은 완결되며 의미 전달도 분명하다. 여기에 침사 '-게'가 덧붙음으로써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항상 침사 '-게'가 놓인 문장성분에 초점이 있다. 침사 '-게'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구정보이고 청자에게는 신정보임을 확인해 주는 담화기능이 있다.

침사 '-게'는 감탄사, 종결어미의 통사기능이 있지만 담화기능이 더 강하다. 화자가 '-게'를 덧붙여서 발화하는 데는 담화 상황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침사 '-게'는 화자가 확실한 신념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선택됨을 보았다. 침사 '-게'가 없는 문장은 무표항이고

있는 문장을 유표향으로 보면 침사가 쓰인 유표향일 때 담화 의미가 있다.

3. 침사 '-이' 의 담화기능

제주방언 침사 '-이' 는 '-게' 와 발화되는 자리가 같고 통사 조건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게' 만 쓸 수도 있는데 왜 화자들은 '-이' 도 발화할까가 의문이다. 그 이유를 담화상에서 찾아보겠다.

(1)가. 아까 뭘엔 골읍디가?(방금 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 이?

(1나)는 감탄사로 쓰였는데 화자가 청자보다 순위일 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 말이 의심스러울 때 반문하는 반응이다. 주로 노인층에서 발화된다.

(2)가. 영 비 오는디 일헤지쿠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 계메이.(글썸이)
다. 계메.

'계메게' 와 마찬가지로 (2나)도 부사 '계메' 에 침사 '-이' 가 통합되었다. 두 응답형을 비교하면 침사 '-이' 가 쓰여서 화자의 의지가 더 반영되었다. 즉 화자가 침사 '-이' 를 선택함으로써 '계메' 보다도 '계메이' 에 화자의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 화자 자신도 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어서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3)가. 가원 나가 잘 안다이.(그아이는 내가 잘 안다이.)

나. 그 노래 들어봤지이?(그 노래 들어 보았지이.)

다. 너 경호지 말라이.(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이.)

라. 집이 가게이.(집에 가자이.)

(3')가. 안다.

나. 들어봤지?

다. 말라.

라. 가게.

(3)에서 보듯이 침사 '-이'는 주로 반말체 문장에서 발화되며, 평서, 의문, 명령, 청유문에서 성립한다.

(3가)는 '안다이'에 초점이 놓여서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그아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화자 자신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3나')가 단순한 의문문이라면 (3나)는 화자의 생각이 확고함을 보여준다. 발화된 문장이 '내가 알기에 너는 전에 그 노래를 들어보았다'라는 뜻이다. 즉 청자에게도 구정보임을 확인하는 문장이다. 청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화자가 알고 있는 구정보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3다)에서 '말라'라는 단순 명령보다는 침사 '-이'가 쓰임으로써 청자를 달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아울러 동작주의 행동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3라')는 단순한 청유문인데 (3라)처럼 침사 '-이'가 통합되면서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어서 청자의 변화된 행동의 결과를 요구한다. 화자가 청자와 같이 집에 가고 싶은 정도가 강하게 표현되어서 요구를 저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발화된 문장에서 화자의 생각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침사가 있기 때문이다.

(3')처럼 침사 '-이'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3)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는 침사 '-이'가 문장종결형에서는 통사기능보다는 담화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에게 침사 선택

권이 있으므로 화자의 생각이 확실하게 반영된다. 첨사 '-이'에는 화자의 의지, 강조,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있다.

(4)가. 가윈 집이 갓주.(그아이는 집에 갔다.)

나. 가윈 집이 갓주이.

다. 가윈 집이 갓주게.

라. 자네만 가오쥬.

(4)에서 보듯이 반말체 문장에서는 첨사 '-게'와 '-이'가 상호 교체된다. 화자의 의지 반영 정도를 보자면 (4나)보다 (4다)가 좀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4라)에서 '-쥬'는 종결어미 '-주'와 첨사 '-이'의 결합형이다. 제주방언에서 '-쥬' 형은 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화된다.

(5)가. 밥 잘 먹었수다이.(밥 잘 먹었습니다이.)

나. ?이 쫘은 잘도 곱수다이.(이 쫘은 매우 곱습니다이.)

(5)에서 첨사 '-이'가 쓰인 것은 반어법의 일종이다. 화자가 첨사 '-이'를 발화할 때는 상대방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다는 인상이 강하다.

(5가)에서 화자는 실제로는 잘 먹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또는 감정 표현을 요구받았을 때 마지못해 하는 발화이기도 하다. 어쨌든 첨사 '-이'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5나)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발화되지만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도 가능하다.

(3)과 같이 반말체 문장에 첨사 '-이'가 통합할 때는 화자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지만 (5)처럼 높임말에 쓰이는 것은 어색하다. 즉 첨사 '-게'는 높임 선어말어미와 공기하는데 첨사 '-이'는 그렇지 못하다.

문병우(2002:64)에서도 동남방언에 첨사 '-이'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봐서(오랜만이데이) 제주방언과 동남방언에서는 첨사 '-이'의 담화기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첨사 '-이'는 감탄사로도 쓰이며 부사나 종결어미와 통합한다. 종결어미의 문법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첨사 '-이'는 완결된 문장에 덧붙는 첨사의 기능이 강하다. 첨사 '-게'는 서법상 높임말과 낮춤말에 두루 쓰이지만 첨사 '-이'는 주로 낮춤말에 쓰인다. 따라서 첨사 '-게'와 '-이'는 대우법과도 관계가 있다.

첨사 '-게'와 '-이'에 액센트가 있으며 조금 길게 발음된다. 이것은 화자의 심리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4. 첨사 '-기'의 담화기능

제주방언 첨사 '-기'는 명사형어미 '-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문장 종결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동일 기원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첨사 '-기'의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보겠다.

(1)가. 난 오늘 일했주기.(나는 오늘 일했다.)

나. *는 오늘 일헨다기?

다. *오늘 일헨라기.

라. *오늘 일헨게기.

마. 오늘 일훙주기.

(1)에서 첨사 '-기'는 (1가)처럼 평서형종결어미와는 통합하는데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과는 통합하지 못한다. 다만 (1마)가 청유문인데 성립한 것은 종결어미 '-주'가 있기 때문이다.

(2)가.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난 오늘 밧에서 일했다.)

나.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기.

다.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게.

라.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이.

(2)에서 보면 (2가)만으로도 문장은 완결되지만 첨사가 덧붙어서 또 하나의 문장이 완결되었다. (2나~라)에서 첨사 '-기, -게, -이'가 통합된 문장에는 화자가 강조하거나, 인정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다. 이들 첨사는 화자가 의사 반영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다. (2나)에서 첨사 '-기'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즉 화자의 신정보를 청자에게 알려 주려는 의도가 있다. 물론 초점이 서술어에 놓이며, 첨사에 액센트가 있다.

(3)가.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기.(나는 오늘 밧에서 일했다.)

나.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게.

다.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게이.

라.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이게.

마. *난 오늘 밧디서 일헛주게기.

(3)에서 종결어미 '-주'는 반말체 첨사 '-기, -게, -이'와 공기한다. 첨사 '-기'의 통사 환경을 보면 종결어미 '-주'와만 통합한다. 첨사의 중복도 가능한데 (3나~다)에서 '-기게'와 '-게이'는 성립하는데, (3라~마)에서 '-이게'와 '-게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첨사의 중복 사용도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통사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4)가. 난 오늘 밧디서 일헛저.(나는 오늘 밧에서 일했다.)

나. *난 오늘 밧디서 일헛저기.

다. 난 오늘 밧디서 일헛저게.

라. 난 오늘 밧디서 일헛저이.

(4)에서 종결어미 '-저'와 첩사 '-기'는 통합할 수 없으며 첩사 '-게, -이'는 자유롭게 통합된다. 첩사 '-기'는 통사 환경이 제약되어 있다.

(5)가. 난 오늘 밧디서 일헛지.(나는 오늘 밧에서 일했다.)

나. 난 오늘 밧디서 일헛지게.

다. 난 오늘 밧디서 일헛지이.

라. *난 오늘 밧디서 일헛지기.

(5)에서도 종결어미 '-지'와 첩사 '-기'는 통합이 불가능하나 첩사 '-게'와 '-이'는 종결어미 '-지'와 자유롭게 통합한다.

(1)~(5)에서 첩사 '-기'는 종결어미 '-주'와만 통합한다는 통사 환경이 제약되어 있다. 즉 평서문이나 명령문인 경우 종결어미 '-주'와만 통합한다. 첩사 '-기'에는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지가 잘 반영된다.

5. 마무리

제주방언 반말체 첩사 '-게, -이, -기'의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보았다. 첩사 '-게'는 감탄사,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격조사, 보조사, 의존명사, 명사 등 한 문장 내에서 거의 통사적인 제약 없이 실현된다. 또한 대우법체계에서도 높임말이나 낮춤말에 두루 쓰인다.

첩사 '-이'는 첩사 '-게'에 비하면 통사 제약이 조금 있다. 첩사 '-이'는 감탄사의 통사기능이 있으며, 부사, 종결어미와만 통합한다.

첨사 '-기'는 종결어미 '-주'와만 통합해서 첨사 '-게'나 '-이'에 비하면 통사 제약 환경이 심한 편이다.

반말체 첨사의 통사 분포 제약 정도를 보면 '-게' < '-이' < '-기' 순이다. 첨사 '-게'의 통사 환경이 자유로워서 첨사 '-이'나 '-기'와 임의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다.

첨사의 분포는 한 문장 내에서 자유롭다. 즉 문장종결어미 다음에 위치하며, 일차 완결된 문장에 덧붙는다. 따라서 이들은 첨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을 보면 화자의 확신, 의지, 단정, 강조 등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발화된다. 물론 이들 첨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선택되지만 실현되는 환경 영역이 구분된다. 지금도 제주방언 화자들은 첨사 '-이, -기'에 비해서 첨사 '-게'를 보편적으로 발화한다. 첨사 '-게'는 생산성이 높은 첨사이며 통사기능보다는 담화기능이 강하다.

<참고문헌>

- 문병우(2002), 한국어 화용표지 연구, 국학자료원.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